

2010.10.11 미래정책연구실

□ 일본, 중국에 의한 곡물약보 압박 직면

<Financial Times (2010.10.04) 주요 내용>

- 최근 일본은 곡물 확보를 둘러싼 개발도상국과의 경쟁, 특히 **중국과의 경쟁이 심화**되면서 새로운 식량자원 확보 및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.
 - 중국은 WTO 가입 이후, 2000년부터 콩을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고, 최근에는 연간 콩 수입량이 1,300만 톤까지 급증했음. 금년에는 5,00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.
 - 과거 세계 최대 콩 수입국이었던 일본은 현재 콩 수입을 위해 자국의 수입량(약 360만 톤)에 10배 이상을 사들이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함.
- 국제 곡물 시장에서 중국의 구매 수요 및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일본의 협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곡물 물량확보 어려움은 가중
 - 일본 업계의 중역은 곡물 공급자가 소량으로 제품을 구매하면서 품질과 가격에 대해 까다로운 일본보다 좋은 가격에 꾸준히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중국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언급함.
 - 8월말 이후 중국의 곡물 구매 증가로 10월과 11월에 일본의 선적을 위한 콩, 옥수수가 부족한 상황임.
- 비록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밀을 수입하지 않지만, 최근 러시아의 밀 수출 금지 조치는 일본의 곡물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.
 -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러시아 밀에 대한 가용성이 감소하자 사료용 옥수수, 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, 이로 인해 옥수수, 콩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언급함.

- 중국이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하는 등 금년 초 불안정한 곡물 수급 상황은 일본 농업부문에 큰 충격을 미쳤음.
 - USDA에 따르면, 금년 9월말 중국 옥수수 수입량은 작년보다 27배 증가한 1,300만 톤으로 나타남.
 - 일본의 무역업체 중역에 따르면, 중국은 미국의 경작지, 수출터미널 등 생산 및 유통 기반을 매입하기 시작했고, 만약 중국이 옥수수 주요 수입국이 된다면, 일본의 옥수수 가용성에 대한 충격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냄.
- 니혼대학의 Keiji Ohga 교수는 중국의 곡물 구매 증가보다 **바이오연료 산업부문에서의 곡물 수요 증가**가 일본의 곡물 공급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.
- 일본은 옥수수, 콩 등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저개발국 또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해외 원조(농업개발)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.
 - 일본의 곡물 회사인 Gialinks가 진출하여 유기농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 **아르헨티나**의 Baradero 지역은 곡물의 해외 주요 공급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 - 일본의 해외원조 기관은 **기니**의 광대한 사바나 지역에 옥수수, 콩 재배를 위한 경작지로 전환하고자 브라질, 모잠비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.
 - 또한, 최근 마루베니는 프랑스와 밀 수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, 본래 프랑스는 곡물 수입 대상국이 아님. 곡물을 둘러싼 국제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하면서 곡물 공급처에 대한 선택범위도 변하고 있음.

<시사집>

-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 생산량 감소, 특정 국가의 곡물 수출 제한 및 수입 증가 등 최근 국제 곡물 시장은 과거에 비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음.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곡물 가용성의 제약은 “식량 무기화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.

-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곡물 구매 영향력 증대 및 생산 및 유통 기반 확충과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.

□ 미국, 호주 주요 곡물 생산 및 가격 전망

<Businessweek (2010.10.01 및 10.04) 주요 내용>

- 미국 옥수수, 콩 가격은 남부 지역의 적절한 강우로 인한 작황 호조로 지난주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 - 시카고 선물거래시장 12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지난주보다 11% 하락한 부셸당 4.66달러이며, 11월 인도분 콩 선물가격은 지난주보다 6.1% 하락한 부셸당 10.57달러로 나타남.
- 9월 29일에 발표한 호주 국민은행의 전망치에 따르면, **호주 전체 밀 생산량**은 2009/10년(2,170만 톤)보다 **9.7% 증가**한 2,380만 톤으로 나타남.
 - 이는 지난 8월 호주농업자원경제국(ABARE)에서 발표한 밀 생산량 전망치(2,510만 톤)보다는 5.2% 감소한 수준임.
- 호주 밀 최대 산지인 **서부지역의 밀 생산량**은 강수량 부족 및 고온으로 작년보다 45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 - 금년도 우기는 사실상 종료되었지만, 서부 지역에는 강수량이 크게 부족했고, 기온도 35℃ 이상으로 고온이 지속되어 밀 생육에 악영향을 미쳤음.
 - 서부 지역의 금년 밀 생산량은 447만 톤으로 작년(820만 톤)보다 45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- 반면, **동부 지역 밀 생산량**은 적절한 강우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- 한편, 시카고 선물 거래시장의 12월 인도분 밀 가격은 지난주보다 0.3% 하락한 부셸당 6.72달러로 나타남.

<시사점>

- 주요 수출국인 호주의 밀 생산량은 작년보다 10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8월 전망치보다는 증가폭이 6%p 줄어 호주의 밀 수확량 증가가 국제 밀 가격 상승폭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름.
 - 호주의 밀 수확은 10월~익년 3월에 걸쳐 이루어지는데, 향후 메뚜기 및 쥐 떼들에 의한 피해, 동부 및 서부 지역의 기상이변 등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존재하여 수확시기에 면밀한 관찰이 요구됨.

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